

意味資質 기반 象形字 形體素 分析 小考

박석홍*

◁ 목 차 ▷

- I. 서언
 - II. 상형자 형체의 의미자질 기반 분석의 가능성
 - III. 형체소의 정의
 - IV. 형체소의 분류
 - V. 형체소의 구현 방식과 그 속성
 - VI. 형체소 분석의 의의 및 활용 가치
 - VII. 결어
-

I. 서언

漢字 중의 象形字는 객관사물을 일정한 필획으로 형상화하는 造字 원리에 의해 생성된 문자로서 ‘文’, 즉 獨體字에 속한다.¹⁾ 상형자는 會意·形聲 등 다른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한자들에 비해 수적 비중은 현저히 낮지만, 문자언어의²⁾ 본질적 기능을 최초로 수행한 문자 형식이며, 또한 合體字 형체 구성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한자의 생성과 변화·발전 등의 한자 역사 전 과정에 있어 차지하는 상형자의 중요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1) 《說文·叙》: “倉頡之初作書,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鄭樵《通志·六書略》: “獨體爲文, 合體爲字.” 段玉裁《說文解字注·十五上》: “依類象形, 謂指事、象形二字也. 指事亦所以象形也.”
- 2) 문자를 흔히 ‘말소리의 서사 형식’이라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문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로고스 중심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문자의 본질을 이해함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Dürscheid 2007:20~22). 그 이유는 문자가 음성언어와 분명히 다른 독자적 언어기능과 의사소통상의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각주 6) 참조), 이로써 문자는 음성언어의 부용이 아니라 또 다른 언어형식으로서의 ‘문자언어’로 칭할 수 있다.

한 지위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초기 한자의 형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형체의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여 독체자로서의 상형자를 더 이상 하위 단위로 분석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³⁾ 그런데 상형자 역시 문자언어의 본질적 기능인 의미 표시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상형자를 구성하는 각종 필획 및 필획 조합체가 모두 해당 의미의 표시에 적극 간여하고 있다. 따라서 상형자는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써 의미의 구성요소들인 의미자질에 기반하여 그 형체 역시 세분할 수 있다.⁴⁾ 이와 같이 형체소와 의미자질 간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두어 상형자 형체를 분석하는 것을 본고에서는 ‘의미자질 기반 상형자 형체소 분석’(이하 ‘형체소 분석’)이라 칭하였다. 이 형체소 분석의 방법이 타당하고 또 그 결과가 유의미하다면, 이 분석법은 상형자 형체 분석 본연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술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상형자가 표시하는 의미 중의 각 의미자질과 대응하는 상형자의 형체 구성성분을 ‘형체소’라 정의하고, 또 이것이 의미자질을 可視化하는⁵⁾ 다양한 방식과 또 이것의 조합에 의한 상형자 형체 구현 유형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고대한자 및 고대문화 연구 등 관련 분야에 형체소 분석법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해보고, 기존의 문자 및 문화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한자 형체 분석에 관한 이론과 실천 방법론 수립의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3) 독체자 중 기존 문자에 지사부호를 첨가한 형식의 지사자도 지사부호와 나머지 형체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독체자를 일률적으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문자 형식으로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4) 字素·形素·部件 분석 연구 역시 한자 형체 분석 및 연구에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자소는 형태소와 대응하는 형·의 결합의 최소 서사단위이고(박석홍 2013), 또 부건은 필획 중심의 형체 구성단위로서 隸變 이후의 문자, 특히 현대한자의 형체 분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형체 구성단위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 이미 형성된 한자들에 대한 분석의 결과물이며, 상형자의 造字와 형체 변화 과정에 대한 기술을 위해서는 별도의 형체 분석 방법론의 마련이 필요하다.

5) 본고에서의 ‘可視’는 단순히 보여주어서 알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보아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시각과 관련한 단순 행위가 아니라, 언어의 본질인 의미가 전달되고 인식되어 지는 심층적 심리 및 정신작용을(孟華 2008:7) 의미한다.

II. 상형자 형태의 의미자질 기반 분석 가능성

언어의 본질적 기능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즉 의사소통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성에 의한 것과 문자에 의한 것이다. 이중 특히 문자는 고도로 발달한 문화의 토대 위에서 자연언어로서의 음성언어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제2의 언어이다.⁶⁾ 문자를 통한 언어 본질적 기능의 실현이 음성언어에 의한 것과 가장 큰 차이는 가시적 부호 및 그 체계에 의한다는 점이다. 문자 중에서 표의문자, 특히 최초의 문자 형식인 상형자는 객관사물을 형상화 것으로, 한자를 비롯한 여러 고대문자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것의 초기 형태는 그림과 유사한 형식이었다. 따라서 상형자에 의한 의미 표시 및 인지의 원리와 방법은 그림을 통해 특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그림은 객관사물의 있는 그대로를 그려낸 것으로, 묘사 대상 사물의 각종 부위의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선과 면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 개인의 특수 경험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요소가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따라서 그림이 객관사물의 형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적어도 동일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통으로 인지하게 된다.

그런데 그림은 점·선·면들의 포괄적인 덩어리가 아니다. 이것은 해당 사물의 외형적 특징이나 속성을 묘사한 개별 그림 조각들의 집합체이다. 가령 나무를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그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무'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각종 부위들을 점·선·면 등으로 구성된 일정한 그림으로써 그려내야 한다. 이로써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나무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들, 즉 가지·줄기·뿌리 등과 같은 나무 형태나 속성을 나타낸 각 부위에 대한 종합적

6) 음성언어의 보조적 언어라는 의미에서 문자를 '제2의 언어'라 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문자는 음성언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의 저장 기능과 공시·통시적 소통 가능성 등을 가지는 것과 같이 기능적 측면에서 음성언어에 비해 월등한 장점을 가지는 또 다른 의사소통 도구이다. 특히 한자는 음성만을 적는 음소문자와는 달리 의미를 직접 표시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문자를 '제2의 언어'로 칭하는 것은 문자가 음성언어와 체계 및 기능을 달리하면서 의미 표시상의 독자적 기능을 별도로 가지는 또 다른 언어체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인 인식을 통해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이 '나무'임을 알게 된다.⁷⁾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임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흙·풀·열매 등과 같이 '나무'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주변 사물을 함께 그려 넣기도 하여,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것들의 도움을 받아 이 그림이 '나무'임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나무'라는⁸⁾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상형자를 고안하는 것도 나무 그림으로써 '나무'임을 알게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원리라 할 수 있다.⁹⁾ 다만 상형자가 그림과 다른 점은 의사소통에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서사 효용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형자는 그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한 형태를 취함과 동시에 의미 표시상 직관성을 추구한다. 이때 채택한 형태 구성요소가 바로 나무의 형태나 속성과 가장 밀접한 부위인 가지·줄기·뿌리 등의 구현체이며, 이들은 '나무'란 의미를 구성하는 주요한 의미자질들이다.¹⁰⁾ 이는 '나무'를 나타내는 상형자가 이들 의미자질에 대응하는 형태 구성요소에 근거해 잘게 쪼개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다른 상형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상형자는 의미자질에 근거하여 상형자의 형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의미자질과 상형자 형태 구성과의 상관관계에 근거해 상형자 형태의 구성 원리나 조자 방식 등을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7) 나무 그림이 만약 '나무'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그림 중의 가지·줄기·뿌리 등은 이와 관련한 의미자질(각주 10) 참조)이 가시화된 형태소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8) 본고에서는 형태소 혹은 단어 의미는 ' ', 의미자질은 [], 형태소는 { }로써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9) 문화는 자연환경, 역사조건, 지리적 위치, 사회적 현실 등에 의해 형성되는데(朱文俊 2000:64~65), 이러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의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상형자는 각종 문화요소를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문자체계이지만, 만약 문화를 달리 한다면 이 상형자에 포함된 특정의 문화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상형자의 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 의미자질(semantic feature)은 곧 의미성분(semantic compound)이며, 이것은 성분 분석(componential analysis)에 의해 추출이 가능하다. 상형자가 표시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성분분석은 일반적인 단어 의미의 의미성분 분석보다 임의적·자의적이지 않고 훨씬 실증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상형자 형태 중의 형태소들은 의미자질이 가시화된 것들이며, 이를 통해 해당 단어 의미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의미자질을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Ⅲ. 형체소의 정의

문자의 형체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는 이것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함축적인 기술이다. 특히 한자 중의 상형자는 표의문자에 속하므로 외형적 특징을 기술함과 동시에 표시 대상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즉 상형자의 형체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자질과의 관계와 이것을 가시화하기 위한 외재적 형식, 그리고 이 형식의 상대적 독립성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형자가 중국어의 형태소 혹은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상형자 형체의 구성요소 간 결합에 의해서이다. 상형자 형체의 구성요소들은 의미의 구성요소인 의미자질들에 각각 대응함을 앞서 살펴본 바 있는데, 이처럼 의미자질에 대응하는 상형자 형체 중의 각 부분을 ‘形體素’라 한다.¹¹⁾ 구체적인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갑골문 ‘木’이 𣎵(庫226) 등의 형체로써 ‘나무’라는 의미를 구현하는 것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𣎵은 [줄기]·[뿌리]·[가지]·[토양]·[식물] 등 ‘나무’를 구성하는 여러 의미자질들¹²⁾ 중 [줄기]·[뿌리]·[가지]라는 세 가지 주요 의미자질을 각각 丿·丨·‘人’ 등의 필획 또는 필획조합체로¹³⁾ 구현한¹⁴⁾ 형체 구성요소의

- 11) 한자 구성의 세 요소인 형체·음운·의미는 각각 이들을 구성하는 하위단위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운은 성모와 운모, 혹은 자음과 모음 등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형체 역시 하위단위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의미 표시를 통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는 한자의 문자언어적 기능에 중심을 두어 의미의 구성요소로서의 의미자질에 근거해 형체를 세분화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형체 구성성분을 ‘형체소’로 정의하였다.
- 12) ‘나무’의 의미자질은 이것의 외형적 특징과 속성을 규정한 자서 및 사전을 통해서 추출해낼 수 있다. 가령 “木, 冒也. 冒地而生東方之形, 從中, 下象其根.”(《說文·木部》)과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국립국어원 2005)과 같은 풀이는 ‘나무’가 적어도 [줄기]·[뿌리]·[가지]·[토양]·[식물]과 같은 대표적인 의미자질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필획은 隸書 이후의 문자 형체 구성요소(‘書寫元素’)로서 갑골문·소전에서 ‘練條’, 또 금문에서의 鑄迹과 구별하는 경우도 있으나(王寧 2002:34), 본고에서의 ‘필획’은 일정한 필획을 갖춘 서사 실현의 최소단위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 14) 형체소에 의해 구현되는 의미자질은 해당 사물에 대해서 해당 사회의 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장 필수적이라 인지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사물의 외형에 대한 인지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사회·문화적 사유에 의해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의 가시화는 곧 서사

조합체이다. 이처럼 ‘나무’ 중의 의미자질 [가지]·[줄기]·[뿌리]에 각각 대응하는 형체 구성요소 ㄹ·丨·ㄲ가 바로 갑골문 𣎵의 형체소이다. 따라서 형체소는 상형자의 의미 표시를 위해 의미자질을 가시화 한 최소의 형체 구성요소로서의 필획 및 필획조합체인 것이다.¹⁵⁾ 이들 세 형체소(SE)가 의미자질(SF) [가지]·[줄기]·[뿌리]를 가시화하여 𣎵이라는 갑골문 형체를 구현함으로써 비로소 ‘나무’란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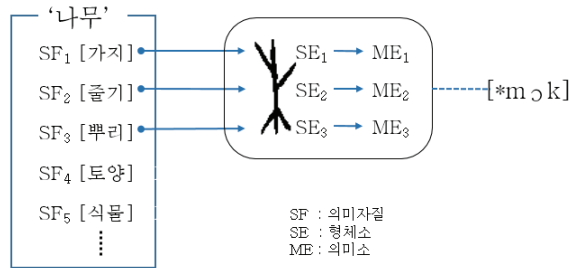
$$\begin{aligned} & \{SF_1 \text{ 가지}\} : \{SF_2 \text{ 줄기}\} : \{SF_3 \text{ 뿌리}\} \\ = & \{SE_1 \text{ ㄹ}\} : \{SE_2 \text{ 丨}\} : \{SE_3 \text{ ㄲ}\} \rightarrow \text{𣎵 '나무'} \end{aligned}$$

그런데 상형자 𣎵을 {SE1}·{SE2}·{SE3} 등의 형체소로 나누는 것은 독체상형자를 더 이상 형체적으로 구획할 수 없는 필획의 통합체로 보는 기존의 견해와 배치된다.¹⁶⁾ 이것은 주로 독체상형자가 외형적으로 편방 간의 결합에 의한 합체자처럼 서사경계(writing boundary)를¹⁷⁾ 쉽게 인지할만한 필획 및 필획조합체 간의 공간적 경계가 불분명한 것에 기인한다.¹⁸⁾ 그렇지만 앞에서 [SF1]·[SF2]·[SF3]에 대응하는 {SE1}·{SE2}·{SE3}이 엄연히 존재함을 살펴보았듯이 독체상형자의 형체는 의미자질에 대응하는 형체소에 근거해 형체 구조상 공간적 구획이

주체와 인지주체에 있어 해당 ‘사물’에 대한 일종의 ‘상징’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조합에 의한 상형자 형체를 통해 ‘지시를 일으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

- 15) 이때 형체소를 통해 표시되는 특정 의미자질을 ‘의미소’라 할 수 있다. 의미소란 한자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의미와 관련한 부분이다. 하나의 문자는 여러 의미자질들 중 일부의 의미자질이 가시화된 형체소의 조합에 의해 의미를 나타내는데, 한자 역시 형체소로 표시되는 제한된 의미소들에 의해 의미를 나타낸다.
- 16) 예를 들어 독체자를 하나의 ‘集體表象’에 의한 문자로 보는 설(王玉新 2000:70)이 있다.
- 17) 일반적인 서사경계는 음소·음절 등 음성언어의 구성요소 중심으로 설정된다. 이는 인구어의 표기체계 중심의 서사경계에 대한 정의이다. 한자는 엄연히 인구어와 유형적 특징을 달리하는 중국어의 서사체계이므로 이와는 다른 서사경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즉 한자는 엄밀히 말해 음성의 표시라기보다는 의미표시 체계이므로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경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관련 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편방·부수·자소 등은 의미 구성요소에 따른 서사경계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 18) 부수·편방·자소 등과 같은 한자 구성요소들은 시각적으로 형체 결합 구조상으로는 한 문자 내에서의 서사경계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다.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의미 구성요소에 따른 서사경계를 ‘의미적 서사경계’라 칭할 수 있겠는데,¹⁹⁾ 기존의 독체상형자에 대한 하위 단위로의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와는 달리 이러한 서사경계에 근거하여 형체소를 추출해 낼 수 있다.²⁰⁾ [가지]·[줄기]·[뿌리]가 서사경계의 기준이 되어 {ㄩ}·{||}·{ㄸ}의 조합에 의해 ‘나무’를 표시하는 상형자 ‘𣎵’이 생성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형체소의 구현과 상형자 형체 구성 과정

전술에서 밝힌 의미자질과 형체 구성요소와의 대응 관계, 그리고 의미적 서사경계에 따른 개별 형체 구성요소의 추출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형체소를 정의하자면, 형체소는 곧 의미자질의 외재적 표시 형식으로서, 의미자질을 서사경계의 근간으로 삼는 상형자 형체 구성 및 표의상의 기본 단위인 것이다.

19) 의미적 서사경계는 이미 만들어진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체 분석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상형자 조자 원리 중심의 서사경계 분석이다. 즉, 상형자를 통한 의미 표시에 있어 고대 서사인들은 어떤 의미자질을 가시화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해당 의미자질에 대응하는 형체소를 구상하여 이들을 결합시킴으로써 하나의 상형자 형체를 구현한 것이다. 이 과정 중 의미자질에 근거한 공간적 구획이 바로 조자 당시의 의미적 서사경계가 되는 것이다.

20) 예를 들어 《설문》에서의 ‘何’는 의부 ‘人’과 성부 ‘可’의 결합에 의한 형성자로 편방 간 서사경계가 분명하다. 그렇지만 갑골문 ‘何’는 ‘𠂇(粹543)·𠂇(續6·9·6)’ 등과 같이 어깨에 창(戈)을 짊어진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馬如三 1993:489) 문자로서 이것의 형체 구성요소의 서사경계는 모호하다. 이 경우 갑골문 ‘何’의 형체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미에 근거해 서사경계를 나누어야 한다.

IV. 형체소의 분류

1. 형체의 具象度에 따른 분류

객관사물의 형상화에 있어 이것의 형체에 대한 묘사가 자세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의 정도를 '구상도'라 할 수 있다. 상형자의 구상도는 곧 의미 표시와 관련한 객관사물의 개별 부위들을 형체소를 통해 얼마만큼 자세하게 묘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상형자 중 형체소의 구상도가 높으면 상형자 전체의 구상도가 높고 구상도가 낮으면 상형자의 구상도 역시 낮다. 이처럼 상형자 형체의 구성요소로서 구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형체소는 구상도에 따라 구상형체소와 추상형체소로 나눌 수 있다.²¹⁾

1) 具象形體素

구상형체소는²²⁾ 상대적으로 높은 구상도를 가지는 형체소이다. 구상형체소는 다양한 필획으로 특정 의미자질을 객관사물의 실제 형태와 비교적 유사하게 구현하여 직관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 형체소가 표시하는 것이 어떤 사물의 구성요소이며, 또 어떤 의미자질을 가시화 한 것인지를 인지주체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초기의 상형자나 형체적 보수성을 띠는 商代 및 西周 금문 중에서 구상형체소를 포함하는 상형자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골문 '目'('目', 甲215) 중 검은자위와 흰자위를 형상화 한 각 부분, '木'('木', 庫226) 중의 뿌리를 나타낸 부분, 번개 모양을 나타낸 '申'('申', 佚57) 등이 이 예에 속한다. 구상형체소 중에서 복잡한 필획에 의해 구성된 것들은 객관사물의 형태를 비교적 직관적으로 형상화하

21) 형체소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매우 초보적이고 단순해보이지만, 상형자가 의미 표시를 위해 객관사물을 형상화한 문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형체소의 직관성은 언어 본질의 실현이라는 문자 본연의 기능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분류 역시 상형자 형체 분석에 있어 의미가 있다 하겠다.

22) '구상'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 특히 예술 작품 따위가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는 것'인데(국립국어원 2015), 본고에서의 '구상'은 적어도 형체소가 객관사물의 특정 부분의 외형적 특징을 실제와 가깝게 가시화하려 노력한 그 결과로서의 형체를 의미한다.

여 표의의 효용성은 높지만 반면에 서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구상형체소는 서사의 편의성이 추구됨으로써 구상도가 점차 감소하거나, 혹은 추상형체소로 바뀌는 형체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2) 抽象形體素

추상형체소는²³⁾ 추상의 기호에 가까운 간단한 필획으로 구성된 형체소이다. 이것은 구상형체소에 비해 구상도가 현저히 낮아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사물의 어느 부분을 형상화하여 해당 상형자의 의미 중 어떤 의미자질을 표시하였는지 알 수 없는 형체소로서, 인지주체에게는 매우 단순화된 상징적 단서만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추상형체소는 다른 형체소의 표의상 조력에 의해서만 이것이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지 비로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골문 ‘𠄎’(冊, 乙1712) 중 죽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선의 세로획으로 간략하게 묘사된 것이나, ‘口’(口, 甲1139)와 같이 임의의 필획조합에²⁴⁾ 의해 객관사물을 형상화한 것 등과 같이 객관사물을 단순한 필획 또는 필획조합으로 나타내어 직관적으로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형체소들이 추상형체소이다. 이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형체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²⁵⁾ 추상형체소로는 이밖에도 ‘氣’의 갑골문 ‘𠄎’(前7·9·3) 중 ‘一’과 같이 무형의 사물을 가시적으로 형상화 한 형체소, 그리고 갑골문 ‘日’(日, 鐵62·4)·‘月’(月, 粹659) 중의 짧은 필획처럼 균형미·공간미·장식·변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형체소 등이 이에 속한다.²⁶⁾ 추상형체소는 최초의 조자 단계에서부터 추상의 부호인 것도 있지만,

23) ‘추상’은 원래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 따위를 추출하여 파악하는 작용’을 의미하는데(국립국어원 2015), 본고에서는 앞의 ‘구상’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써,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대상의 실체를 이와 조력하는 다른 부호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 파악하는 행위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24) 갑골문 ‘口’는 갑골문 ‘啍’·‘各’ 등과 같이 임의의 물건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口’와 형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갑골문 ‘口’가 이들 부호들과의 형체적 변별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입과 유사한 임의의 필획조합에 의해서도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25) 갑골문 ‘冊’ 중 죽간을 형상화한 ‘丨’ 등의 필획만으로는 이것이 죽간의 형상임을 직관적으로는 알 수 없다. 이것이 [죽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개의 ‘丨’과 이것을 묶는 끈을 나타낸 필획에 의해서이다.

상당수는 구상형체소가 서사편의를 추구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구상도가 격감하여 추상형체소로 변화된 것들이다.²⁷⁾ 이러한 추상형체소는 상형자가 회화적 형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상징화된 기호의 조합체로 변환시키고, 또 서사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일조하였다. 따라서 추상형체소 중 구상형체소에서 변화된 것은 형체적 모호성은 증가하였지만, 적어도 문자 사용상의 실용성 측면에 있어서는 구상형체소에 비해 더 발전한 형체라 할 수 있다.

2. 표의비중에 따른 분류

상형자 형체를 구성하는 여러 형체소들은 해당 상형자의 의미 표시를 위해 서로 조력한다. 그런데 각 형체소의 지위는 표시하는 의미자질과 상형자 의미 간의 관련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형체소는 상형자 의미와 관련성이 높은 형체소와 그렇지 않은 형체소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형체소의 표의 비중에 따른 분류라 한다. 이에 따르면 형체소는 다음과 같이 일반표의 형체소, 주요표의 형체소, 핵심표의 형체소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一般表意 形體素

일반표의 형체소(이하 '일반형체소')는 특정의 표의 비중이 부여되지 않아 다른 형체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표의 비중을 가지는 형체소이다. 형체소의 표의 비중은 여러 형체소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형체소에 표의 비중을 부여하는 방식은 형상화 대상 사물의 형태나 특성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형체소를 구상적으로 나타내는 방식, 특정의 형체소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서사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주의를 끌게 하는 방식, 다른 형체소 간의 서사경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 그리고 유사한 형체를 띠는 다른 문자와의 형체적 변별을 위해 특정의 부위를 변형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일반형체소는 이러한 형체의 조작성이 없는 형체소이다. 따라서 만약 일반형체소만으로 구성된 상형자라면

26) 지사자 중에서는 '刃'·'本' 중의 지사부호가 추상형체소의 예에 속한다.

27) 금문자로의 형체 변화 과정 중 특히 隸變에서는 구상형체소의 추상형체소화의 사례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 형체소들은 표의 비중이 상호 등위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 조력에 의해서만 해당 상형자 의미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갑골문 ‘木’의 형체를 구성하는 각 형체소들, 즉 [가지]·[줄기]·[뿌리]에 대응하는 ‘ㄴ’·‘丨’·‘ㄹ’이 이에 속한다. 갑골문 ‘木’은 바로 일반형체소들의 조합에 의한 상형자로서, 이를 구성하는 형체소들은 ‘나무’의 표시에 있어 어느 특정 형체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서로 대등한 표의 비중으로 상호 조력하는데, 이들 형체소들 모두가 바로 일반형체소인 것이다.

2) 主要表意 形體素

주요표의 형체소(이하 ‘주요형체소’)는 하나의 상형자를 구성하는 여러 형체소들 중 표의 비중이 나머지 형체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형체소이다. 주요형체소는 형상화 대상으로 삼은 객관사물의 형체 또는 속성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의 형체 일부를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특지함으로써 표의상 다른 형체소들과는 표의상 부등위의 지위임을 나타낸 형체소이다. 주요형체소의 예는 갑골문 ‘犬’에서 찾아볼 수 있다. ‘𠂔’(甲2928)·‘𠂔’(鐵76·3) 등은 ‘개’를 구성하는 [길짐승]·[가축]·[짓다]·[위로 말려올라간 꼬리] 등의 여러 의미자질들 중 [길짐승]·[위로 말려올라간 꼬리]와 같이 개의 대표적인 외형 특징과 관련한 의미자질들을 표시한 몇몇 형체소들로 구성된 상형자이다. 이 중 [위로 말려 올라간 꼬리]에 대응하는 형체소는 일반적인 [꼬리]를 형상화 한 형체소와 구별되는 것이다. 갑골문 ‘犬’이 이 형체소를 취한 것은 적어도 조자 당시 서사주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꼬리를 개의 전형적 특징으로 인식하였던 것에 기인하는데, 이로써 이것을 형체소로 구현함으로써 ‘개’라는 의미 표시에 있어서의 직관성을 높이고, 또한 유사한 의미자질과 대응하는 형체소를 가지는 다른 문자와의 변별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때 [위로 말려 올라간 꼬리]에 대응하는 형체소는 ‘犬’을 구성하는 다른 형체소에 비해 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체소, 즉 주요형체소인 것이다.

3) 核心表意 形體素

핵심표의 형체소(이하 ‘핵심형체소’)는 객관사물의 형태 및 속성과 직결되는 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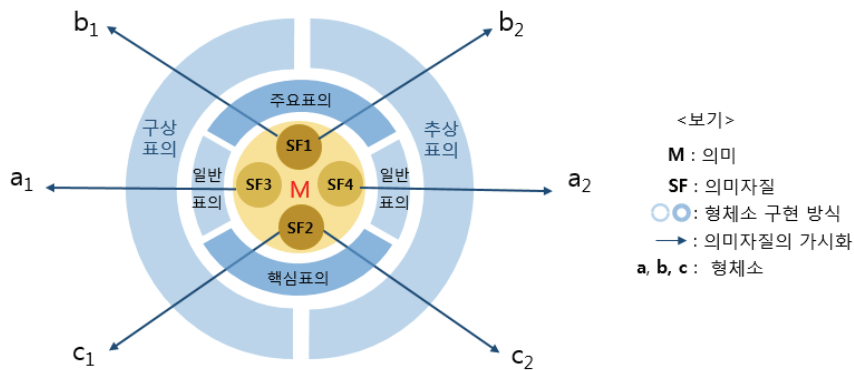
소이다. 이것은 상형자 의미에 내포된 여러 의미자질들 중 가장 핵심적인 의미자질을 구현한 형체소이다. 핵심형체소는 표의 비중 측면에서 일반형체소뿐만 아니라 주요형체소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표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핵심형체소를 포함하는 상형자의 나머지 일반형체소들은 단지 핵심형체소의 표의 기능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형체소이다. 이처럼 핵심형체소를 포함하는 상형자 중에서 핵심형체소의 표의에 조력하는 일반형체소는 핵심형체소와의 표의상 역할 및 그 비중에 근거해 '보조형체소'라 별도로 칭할 수 있다. 핵심형체소는 해당 상형자와의 의미상 연관 정도 측면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상형자의 의미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형체소라 할 수 있다. 갑골문 '眉'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𠄎'(後下25·7)·'𠄎' (佚587) 등은 '눈썹'이라는 의미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눈썹'은 [털]·[눈]·[얼굴]·[사람] 등의 의미자질을 포함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이중 [털]과 [눈]을 형체소로 구현하고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형체의 문자를 만들어내었다. 그런데 [눈]을 표시한 '𠄎' 상단의 형체소 '𠄎'은 형체적 특징과 나머지 형체소 간의 결합 관계 등에 근거하면 이것이 곧 사람의 눈썹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𠄎'은 곧 '눈썹'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자질인 [털]과 직접적 대응관계를 형성하는 형체소로서, 갑골문 '眉'의 핵심형체소인 것이다.

V. 형체소의 구현 방식과 그 속성

서사주체가 다양한 형체소를 활용하고 표의 비중을 부여하면서 상형자의 형체를 구성하는 것을 內容과 形式과의 관계로 기술하자면, 형체는 언어 內容의 표시를 위해 서사주체가 객관사물의 외형적 특징에 착안하여 창출해낸 하나의 形式이다. 이에 따르자면 상형자는 바로 형체라는 형식을 통해 언어의 내용인 의미를 직접 표시함으로써 음성언어를 대체하여 언어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는 문자이다.

언어 내용을 표시하는 상형자의 형식은 이것의 표의상 분업 요소인 형체소에 의해 구성되며, 이 형체소는 언어 내용으로서의 의미를 구성하는 개별 의미자질들을 가시화한다. 이 가시화는 인지주체로 하여금 해당 의미자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사주체가 의미자질에 특정의 형식을 갖추게 하는 과정이다. 이 형식은 곧 필획에

의해 구성된 형체소의 외재적 형체로서, 그 구조는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다. 즉 의미자질을 가시화하는 형식은 구상적일 수도 있고 혹은 추상적일 수도 있는 등 구상도가 제각각일 수 있는데, 이것은 내용으로서의 의미 표시의 효용성과 서사편의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이 형체소라는 형식이 상형자의 형체를 구성하는 최소 구성요소로서 가시화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내어보면 다음과 같다.²⁸⁾



〈그림2〉 의미자질의 형체소 구현 방식 및 유형

앞 〈그림2〉 중의 일반표의·주요표의·핵심표의는 의미자질의 가시화 과정 중 해당 의미자질에 대응하는 형체소에 표의비중을 부여하는 것을, 그리고 구상표의와 추상표의는 형체소의 구상도가 부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두 과정을 거친 의미자질은 표의비중과 구상도 등 두 층위의 지위를 동시에 얻음으로써 형체소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미자질들은 구상의 일반형체소(a1)와 추상의 일반형체소(a2), 구상의 주요형체소(b1)와 추상의 주요형체소(b2), 그리고 구상의 핵심형체소(c1), 추상의 핵심형체소(c2) 등 여섯 개의 형체소 중 하나의 형체소로

28) 내용으로서의 의미가 형식이라는 형체소로 가시화되는 과정은 마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外皮를 갖추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를 〈그림2〉와 같이 일종의 ‘캡슐 구조’로 묘사할 수 있었는데, 의미 및 의미자질은 캡슐에 담기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바깥쪽의 두 동심원과 같은 외재적 형식(즉 형체소)을 갖추으로써 의미자질을 가시적으로 구현한다.

구현된다. 이들 형체소는 각각 상형자 형체의 구성요소가 되어 의미 표시에 있어 일정 부분을 담당하여 문자언어의 본질적 기능 실현에 일조하게 된다.

형체소는 상형자 형체에 실제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형체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인 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형자는 의미 표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체적으로나 수량적으로²⁹⁾, 그리고 표의의 구체성과 표의 비중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 된 형체소를 운용한다. 대개의 상형자는 형체 구성요소로서 두 개 이상의 형체소를 조합하여 형체를 형성하게 된다. 형체소에 의한 상형자 구성 방식은 표의 비중과 구상도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표의 비중 측면에서는 다시 표의비중이 형체소 간 상호 등위관계의 조합인 일반형체소들 간의 결합(S1), 형체소 간 부등위의 표의비중을 가지는 주요형체소와 일반형체소 간의 결합(S2), 또 표의상 절대적 표의비중을 가지는 형체소를 포함하는 핵심형체소와 일반형체소 간의 결합(S3) 등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또한 구상도 측면에서는 구상형체소들 간의 결합(R1), 구상형체소와 추상형체소 간의 결합(R2), 그리고 추상형체소들 간의 결합(R3)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각 유형은 표의비중과 구상도가 각기 다른 형체소의 결합에 따라 다시 다음의 11개의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S1	S2	S3
R1	① {a1+a1}	④ {b1+a1}	⑧ {c1+a1}
R2	② {a1+a2}	⑤ {b1+a2}	⑨ {c1+a2}
		⑥ {b2+a1}	⑩ {c2+a1}
R3	③ {a2+a2}	⑦ {b2+a2}	⑪ {c2+a2}

〈표1〉 각종 형체소 결합에 의한 상형자 형체 구성 유형

앞의 상형자를 구성하는 형체소 및 그 조합은 상형자의 실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다.

첫째, ①·④·⑧의 형체소 조합은 모든 형체소가 구상적이어서 나머지 다른 유

29) 만약 형체소의 수가 많다면 적어도 해당 한자 형체의 직관성만큼은 더욱 제고되어 보다 효과적인 표의가 가능해진다.

형의 형체소 조합보다 표의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초기의 상형자나 상대 및 서주 금문에서 이러한 형체소 조합이 상당수 존재한다. 다만 이 형체소 조합에 의한 표의는 높은 구상도로 인해 회화성을 강하게 띠므로써 회화나 그림문자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는 서사상의 불편함을 초래하여 서사편의가 추구되면서 낮은 구상도의 형체소 점차 변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둘째, ③·⑦·⑪의 형체소 조합은 낮은 구상도로 인해 형체의 직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로써 다른 유형에 비해 표의의 효용성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 반면에 문자언어로서의 효용성 측면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형체소 조합은 형상화 대상 사물 자체가 단순한 형태인 것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보다는 주로 오랜 시간동안 서사편의 추구에 따른 필획의 간략화나 기호화에 의한 것이 대다수이다.³⁰⁾

셋째, 앞의 두 유형 다음으로는 ⑤와 ⑨가 표의 효용성이 비교적 높다. 이는 ⑤의 주요형체소 {b1}과 ⑨의 핵심형체소 {c1}의 표의 비중뿐만 아니라 높은 구상도로 인해 해당 형체소가 묘사한 사물과 관련한 직관성이 제고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⑨는 객관사물 자체를 형상화 한 핵심형체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보조형체소의 구상도가 현저히 낮더라도 해당 상형자 전체의 표의 효용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VI. 형체소 분석의 의의 및 활용 가치

전술한 바와 같이 상형자의 형체는 의미자질에 각각 대응하는 형체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형자는 이들 형체소들로 다시 잘게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형체소 분석은 部件분석·形素분석 등과 같이 필획 중심의 형체 분석이 아니라, 서사주체가 객관사물에 관한 의미 표시를 위해 가시화한 의미자질과 형체소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역점을 둔 의미 중심의 상형자 형체 분석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편방분석이나 자소분석 역시 의미에 근거한 분석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형체소 분

30) 隸變에 의한 고대 상형자 형체 변화가 이 유형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석은 의미의 세부 구성요소인 의미자질을 형체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석법에 비해 상형자의 형체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의미 분석 중심의 미시적 형체분석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체소 분석은 기존의 각종 형체 분석법과 더불어 문자언어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에 일조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한자학 및 인접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이론적 기초의 마련과 연구 및 기술 방법론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상형자 형체 기원 연구 측면

형체소 분석은 먼저 형·의가 규명되지 않거나 이설이 분분한 상형자의 형체 기원 연구에 일정한 방법론을 제시해줄 수 있다. 고대한자는 거의 대부분 하나의 낱말을 대표하는데, 이 낱말의 의미는 여러 의미자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해당 객관사물의 형체나 속성을 대표하는 일부의 의미자질들은 앞의 $a_1 \cdot a_2 \cdot b_1 \cdot b_2 \cdot c_1 \cdot c_2$ 등 여섯 가지 방식에 의해 형체소 $\{a_1\} \cdot \{a_2\} \cdot \{b_1\} \cdot \{b_2\} \cdot \{c_1\} \cdot \{c_2\}$ 등으로 가시화되고(앞 〈그림2〉 참조), 또 이들 형체소들은 ①~⑩ 등 유형의 조합에 간여하여 상형자 형체를 구성하게 된다(앞 〈표1〉 참조). 상형자의 형체가 이처럼 의미자질이 가시화된 형체소에 의해 구성되었다면, 어떤 상형자의 형체 전체 혹은 그 일부가 무엇을 형상화하였는지 불분명할 경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해당 상형자가 대표하는 낱말의 의미자질들에 착안하여 이들의 형체 기원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 과정을 간단히 기술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상형자의 의미에 대한 성분분석을 통해 그것에 내포된 각종 의미자질들을 추출해낸다. 그 다음으로는 이들 의미자질들 중에서 규명코자 하는 형체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의미자질이 있는지를 확인해본다. 만약 규명 대상 형체 혹은 그 일부와 특정의 의미자질과의 상호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이것을 해당 의미자질을 구현한 형체소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분한 방증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문자 중에서 규명 대상 형체 및 그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지, 혹은 출토 유물 중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실물 자료는 없는지, 또 문헌 중에는 관련 기록이 없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문화 전승의 흔적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³¹⁾ 만약 이러한 문자 및 실물·문헌자료들이

해당 의미자질과 규명 대상 형체 및 그 일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것을 해당 의미자질을 구현하기 위한 형체소로 간주할 수 있다.³²⁾ 물론 이러한 형체소 분석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관련 자료가 부재하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는 참고할만한 단서를 제공해 줌으로써 상형자 형체 기원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상형자 유형 분류 및 특징 기술 측면

형체소 분석은 상형자의 형체 구성 원리의 기술과 더불어 상형자 유형 분류 및 유형별 특징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도 일정한 방법론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앞의 〈그림2〉에서는 의미자질의 가시화 과정 및 방식을 여섯 개의 유형으로 나타내어보았다. 이는 상형자 형체의 개별 구성요소로서의 형체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임과 동시에, 상형자가 의미 표시를 위해 채용하는 표의 기능 수행 요소로서의 부호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상형자는 형체소 간 표의 효율성과 서사편의가 고려된 적절한 결합을 통해 비로소 문자언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한다. 각기 다른 이들 형체소 간 결합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곧 상형자의 다양한 구성 방식과 유형 분류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술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상형자는 의미 비중 표시를 위한 형체소의 포함 여부에 따라 의미 비중이 대등한 일반 형체소들만으로 구성된 상형자와 의미 비중이 다른 형체소 간의 조합에 의한 상형자 등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다시 형체소의 구상도에 따라 앞의 〈표1〉 중 ①·②·③의 구조를 가지는 상형자로, 또 후자는 ④~⑪의 상형자로 분류할 수 있다(제V장 참조). 각 유형별 상형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②·③에 따른 상형자는 의미 비중이 특정 형체

31) 형체 기원에 대해 이설이 분분하였던 '宀'의 형체 기원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자면, 먼저 卜辭 중에서 사용된 '宀'와 이를 편방으로 취한 문자들이 [생포]·[포획도구] 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분석해내고, 이에 근거해 이것이 사냥과 관련한 도구의 상형자임을 추정하였다. 또한 갑골문 '宀'의 일부 형체가 실제로 발굴된 사냥돌 실물과 일부 문화권에서 사용하였던 사냥돌과 매우 유사한 사실을 확인하여, '宀'가 사냥도구의 일종인 사냥돌에서 기원하였다는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박석홍 2014).

32)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은 기존 상형자의 형·의 분석 결과를 검증함에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에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체소 간의 긴밀한 표의상 조력을 통해 상형자가 대표하는 단어 혹은 형태소 의미를 표시한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 표시를 위해서는 조력하는 형체소의 수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필획의 구성이 비교적 복잡한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④~⑪의 상형자는 객관사물의 외형적 특징이나 속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특정 의미자질을 형체소로써 부각시킴으로써 의미 표시의 효용성을 제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은 다수의 형체소 간 상호 조력보다는 대개 하나의 주요형체소 또는 핵심형체소가 표의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나머지 형체소는 서사편의상 허용하는 최소한의 수량으로써 이를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상형자는 형체 구조상 표의 효용성과 서사편의가 동시에 고려된 상형자라 할 수 있다.

3. 고대한자 형체의 다양성 기술 측면

형체소 분석은 고대한자 형체의 다양성 연구와 기술 측면에 있어서도 관련 이론 및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대한자 형체의 다양성은 고대의 서사주체들이 서사편의를 추구하고, 또 시대별 혹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의미의 차이를³³⁾ 한자 형체에 반영한 적극적이고도 의식적인 서사 행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차이는 엄밀히 말해서 의미자질의 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문자에 반영한다는 것은 곧 해당 의미자질에 대응하는 형체소를 기존의 형체에 부가하거나 혹은 대체·변형·삭제하는 등 문자 형체 중 형체소의 결합 구조 및 구성 형태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문자와 형체소의 변화를 반영한 문자가 공시적 혹은 통시적으로 공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대한자 형체 다양화의 근본 원인과 과정 및 결과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는 시대별·지역별 이체 현상을 들 수 있다. 형체소 분석에 의하면, 이체 현상은 시대별·지역별로 서로 다른 형체소의 채용이나 의미 비중 표시의 상이성에서 비롯된 문자 형체의 다양

33) 이는 동일한 객관사물임에도 각기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이를 서로 달리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자 현상에 대한 형체소 분석은 문자 형체 분석을 통한 고대문화 연구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각 문화 상호 간 비교 연구에 있어 일정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곧 의미자질의 공시적 차이와 통시적 변화를³⁴⁾ 구현한 이들 형체소들의 추가나 대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체소 분석을 중심으로 고대한자의 형체 다양성을 기술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현상적 기술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과정을 문자언어의 본질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고대 서사주체의 한자 조자 및 운용의 관점에서 기술함으로써, 한자 사용의 실제와 문자언어 본질에 잘 부합할 수 있는 고대한자 형체 다양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다.

4. 고대한자 인지 연구 측면

형체소 분석은 한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 중의 서사 및 인지와 관련한 원리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에서는 형체의 최소 구성단위인 필획과 그 조합이 서사 및 인지상의 가장 기본단위로 보는 것이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초기의 상형자를 고안한 고대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의 의미자질을 구현한 형체소를 이용하여 의미를 표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기 다른 구상도와 표의 비중을 부여하여 표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한자를 조자하고 운용하는 등, 형체소를 서사의 기본단위로서 운영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형자는 객관사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동일 문화 내의 인지주체로 하여금 상형자 중의 형체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사물의 주요한 형체 특징 및 속성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하고, 또 이들 형체소들의 조합체가 그러한 특징 및 속성을 표시한 의미자질들의 통합체임을 인지토록 한 것이다. 만약 형체소 운용상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서사주체는 정확한 의미 표시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형체소를 추가하거나 혹은 특정 형체소의 구상도를 높이는 등 형체소 운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곧 서사주체가 인지주체로 하여금 상형자 형체에 대한 정확한

34) 이밖에도 형체소 분석은 고대한자 형체의 통시적 변화인 시기별 서체 변화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도 운용될 수 있다. 즉, 고대문자에서 근대문자로의 변화 과정은 구상형체소의 추상형체소화, 핵심형체소만의 단독 표의의 실현, 일반형체소나 보조형체소의 수적 감소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현대한자의 기호화, 간화자에서의 필획 채용 등도 이 형체소 분석을 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인지를 유도함으로써 서사주체가 의도하였던 해당 문자의 사용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 및 인지 과정에 대한 분석 및 기술에 있어서 형체소 분석은, 고대 중국인들이 고대한자를 단순히 그림과 같은 통합적 이미지나 혹은 필획 및 필획조합체로 서사하고 인지하였던 것이 아니라, 의미자질을 가시화한 다양한 형체소들을 통해 한자를 서사하고 인지하였던 전 과정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할 것이다.³⁵⁾

5. 비교문자학 연구 측면

비교문자학의 연구 내용 중에는 인류 문자의 기원·변화·발전에 관한 공통 법칙 연구와 각 문자 고유의 형체 및 구조 특성 연구, 그리고 각 문자 상호 간의 비교 연구 등을 포함한다(周有光 1998:5). 이들 연구에 있어서 형체소 분석은 문자의 형·의 분석과 각종 문자 현상에 대한 기술에 있어 유용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문자 공통 법칙 연구에 있어서는, 세계 각 지역 및 문화권의 대표적인 고대 문자의 생성 및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 모두가 그림에서 기원하였고, 또 인류의 심적 동일성에 의해 서사 형식이나 의미 표시 방식이 한자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문자 생성·변화·발전의 공통성은 한자를 분석 대상으로 한 형체소 분석이 한자뿐만 아니라 인류의 고대문자 모두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³⁶⁾









세계의 고대문자들이 일정한 공통 속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객관사물을 다른 형체로 나타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각 문자들이 대표하는 언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서사 및 인지주체들의 객관사물에 대한

35) 이러한 형체소 분석의 이론과 경험은 더 나아가 인류 고대문자의 서사 및 인지 연구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6) 이집트의 상형문자에서는 ‘해’와 ‘달’을 ‘☉’·‘☾’로 구현하였는데, 이는 갑골문 ‘日’과 ‘月’이 ‘日’(鐵62·4)과 ‘月’(粹659)로 구현한 것과 형체적으로 일정한 공통성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는 ‘해’와 ‘달’이라는 의미 중에서 의미자질 [+원형]과 [-원형]의 차이를 형체소 구현에 반영한 결과로서, 이러한 형체소의 차이를 통해 해당 의미의 표시와 형체의 변별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納西 東巴文에서의 ‘☉’·‘☾’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즉 문화적 특수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³⁷⁾ 이는 각 문화에 속한 서사 및 인지주체가 문자 형체 구성에 있어 서로 다른 형체소를 채용케 하고, 또 이로써 각 문자들이 상이한 형태를 띠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점은 고대한자 중에 보이는 형체 다양화 현상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앞 제 3절 참조). 따라서 각 고대문화들 간 서로 다른 형체소 채용에 따른 문자 형체의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에도 형체소 분석이 유용하게 운용될 수 있다 하겠다.³⁸⁾ 이를 통해서 각기 다른 문화에 따른 형체적 차이를 세계 각 고대문자 간의 단편적인 비교가 아닌 의미 표시를 위해 운용되었던 개별 형체소의 차이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에 근거해, 각 고대문자를 사용하였던 고대인들의 문자언어 운용 실체에 적절히 부합하는 해당 문자의 형체 기원 및 구조 특징에 관한 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다.

37) 상형자는 그 형체가 아무리 구상적이라 하더라도 고대문화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형자에는 고대문화 중의 개별 문화요소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화석 유물과도 같은 단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상형자의 형체는 객관사물과 관련한 의미가 가시적으로 실현된 것이며, 이 의미 중에는 다양한 의미 자질이 내포되어 있다. 이 의미자질들은 객관사물에 대한 고대인들의 인식의 조각들이며, 또한 이들이 가시화된 형체소들은 심층적인 고대사유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면 그 문화에 대한 세밀한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즉, 형체소를 분석해 의미자질을 추출하고, 이들 의미자질이 반영하고 있는 서사심리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 근거에 내재하는 고대사유 분석을 통한 고대문화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형체소 분석은 개별 문화요소의 세부적 내용을 반영한 의미자질과 이를 가시적으로 구현한 형체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대문화 연구 중 참고가치가 있는 고대문화 관련 단서들의 발굴에 있어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체소 분석은 더 나아가 의미자질의 구현체인 형체소를 통해 표시된 개별 문화요소 자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중국 내의 지역별 시기별 문화의 특수성과 개별성에 대한 연구, 문화 변화 추이 연구, 문화 다양성 연구 등에 있어서도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8) ‘눈’을 나타내는 세계의 고대문자의 형태를 비교해보면, 이집트 상형문자와 메소포타미아 설형문자에서는 각각 ‘’와 ‘’의 형태이지만, 크레타 표형문자에서는 ‘’의 형태이다. 이는 서사주체가 [+속눈썹]이란 의미자질을 구현한 ‘’를 형체소를 취했기 때문이다. ‘’ 중에서 ‘’은 보조형체소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핵심형체소로서, 아마도 이곳의 서사주체는 ‘눈’을 보다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털]에 대응하는 보조형체소의 조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는 또한 갑골문 ‘眉’인 ‘’(後下25·7)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표의 비중이 부여된 형체소가 다르고, 또 이로 인해 각 문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각각 다른 문자이다.

VII. 결어

본고에서는 의미자질에 대응하는 형체 구성요소를 ‘형체소’로 정의하고, 이것을 구상도에 따라 구상형체소와 추상형체소로, 또 표의 비중에 따라서는 일반형체소·주요형체소·핵심형체소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형체소들이 의미자질을 구현하는 다양한 방식과 이들이 상형자를 구성하는 조합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상형자의 형체가 의미자질에 근거해 보다 세분화 할 수 있다는 전제에 의한 것인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상형자의 형체 분석 방법을 ‘의미자질 기반 형체소 분석법’이라 칭하였다.

의미자질 기반 형체소 분석법은 형체 중의 편방 혹은 필획 및 필획조합체에 대한 분석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상형자 형체 분석과는 달리, 상형자의 의미를 구성하는 개별 의미자질들과 또 이것의 표시를 위해 고안된 형체소에 분석의 중점을 둔 상형자 형체분석법이다. 이 분석법은 문자가 단지 음성언어의 보조적 표기 수단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인 의미를 표시하는 또 다른 형식의 언어라는 것을 중시한 형체 분석법이라 할 수 있다.

상형자가 객관사물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표시하는 문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상형자에 대한 기존의 기술에서는 상형자를 객관사물을 그림과 유사한 방식으로 묘사한 음성언어의 보조 표기수단으로 단정하거나, 혹은 非문자·前문자의 간략화·양식화 된 형태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본고의 의미자질 기반 형체소 분석에 의하면, 상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단순히 음성언어를 대체하기 위한 객관사물의 포괄적 형상화가 아니라, 적어도 의미 표시라는 언어의 본질적 기능의 실현에 있어서는 음성언어와 대등하거나 혹은 이보다 더 효과적인 제2의 언어를 지향하였던 매우 의식적이고 정교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형체소 분석이 상형자 본연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인접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의미자질 기반 형체소 분석은 상형자 형체 분석에 있어 보다 세밀한 분석방법론을 마련하여 이를 제시함으로써 상형자 형체 분석 및 연구와 이와 관련한 문자이론의 기초 마련과 관련 연구 및 기술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漢] 許慎《說文解字》(陳昌治刻本), 中華書局(香港), 1972.
- [清] 段玉裁《說文解字注》(經韻樓臧版), 天工書局, 臺北..
- 국립국어원 2015,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박석홍, 2013, 〈漢字 字素의 형성과 분류의 通時的 고찰〉, 《中國文學研究》第53輯.
- _____, 2014, 〈‘白’의 形體 起源 考察〉, 《한중인문학연구》, 第45輯.
- 裘錫圭 2013,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北京.
- 羅常培 1989, 《語言與文化》, 語文出版社, 北京.
- 董琨 1998, 《中國漢字源流》, 商務印書館, 北京.
- 馬如三 1993, 《殷墟甲骨文引論》, 東北師範大學出版社, 長春.
- 孟華 2008, 《文字論》, 山東教育出版社, 濟南.
- 王寧 2002, 《漢字構形學講座》, 上海教育出版社, 上海.
- 王玉新 2000, 《漢字認知研究》, 山東大學出版社, 濟南.
- 朱文俊 2000, 《人類言語學論題研究》,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北京.
- 周斌 2005, 《東巴文異體字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上海.
- 周有光 1998, 《比較文字學初探》, 語文出版社, 北京.
- Christa Dürscheid 2007, 《문자언어학》, 김종수 譯, 유로서적, 서울.
- Mark Collier & Bill Manley 2005, 《대영박물관이 만든 이집트 상형문자 읽는 법》, 하연희 譯, 루비박스, 서울.

【中文提要】

這篇小論文是研究象形字形體分析理論及分析法的, 這裏將與字義成分分析中的義素(Semantic Feature)對應的象形字形體組成部分定義為“形體素”, 而根據形體素的具象度來將它分為“具象形體素”與“抽象形體素”, 還根據形體素的表意程度將它分為“一般形體素”、“主要形體素”、“核心形體素”等三類。本文中還考察了義素體現為形體素的多樣方式及以這些形體素構成為象形字的組成方式。這都在象形字形體根據義素就可以更細密地分析的前提下進行的, 本文稱這樣的象形字形體分析法為“義素基礎形體素分析法(簡稱為形體素分析法)。”

本文的主要內容有: 形體素的定義、形體素的分類、形體素的形體與表意特

徵、形體素分析在漢字學與漢字歷史上的意義以及形體素在研究漢字形體分析中的活用價值等。本文提出的形體素分析法和比已有的各種象形字形體分析法更爲細緻，可以給漢字形體與結構研究方面提供符合於漢字生成與形體演變規律的有所幫助。

【主題語】

한자, 형체소, 의소, 상형자, 형체분석

漢字(Chinese Character), 形體素(Shape element of Chinese Pictograph), 義素(Semantic Feature), 象形字(Chinese Pictograph), 形體分析(shape analysis)

투고일: 2015. 4. 15 / 심사일: 2015. 4. 20~5. 5 / 게재확정일: 2015. 5. 10